만해선양 민간단체 발족… 화두는 '통일'

6월 26일 만해사상실천연합 창립… 대표 선진규 추대
제2회 한국통일문학축전 8월 28~29일 심우장서 개최

민족 독립운동을 이끌며 한국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울림을 전한 만해 스님의 사상을 실천하는 민간단체가 발족했다. 눈에 띄는 점은 만해 스님 추모에 힘을 쏟는 단체들과는 달리 이 시대 만해 스님이 주창할 화두를 직접 사업으로 펼친다는 것이다.

만해사상실천연합(이하 만해연합)은 6월 26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정관을 통과시키고 초대 대표로 선진규 김해 정토원장을 추대했다. 아울러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타 스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고, 김용표 동국대 교수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만해연합은 "광복 7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조국이 다시 둘로 나뉘어 한쪽은 종북, 다른 한쪽은 반동으로 권력 유지수단이 가로막고 있다"며 "통일의 염원은 분열로 굳어만 가니 만해의 독립정신이 이제는 통일정신으로 승화돼야 할 간절함에 와 있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만해연합은 만해 스님의 생전 독립정신을 오늘날 통일정신으로 승화시켜 문학을 통한 남북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문인협회와 대한불교청년회가 공동주최한 '한국문학축전'을 이어받아 '제2회 한국통일문학축전'을 8월 28~29일 만해 스님 탄신일에 맞춰 심우장서 개최한다. 만해연합은 행사에서 '통일염원'이라는 목적 아래 초등부 · 중고등부 · 대학부 · 일반부 · 노인부 등 계층별 백일장을 열고, 우수작품을 모아 이북문인들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의미를 담은 신규 문학작품과 기성인들의 작품 수집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기념식과 5분 발언, 초청공연, 시낭송회, 대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문인협회와 공감대 형성 후 통일염원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통일염원 키우는 백일장과
시낭송회 · 대토론회도 마련
"문학 활동 바탕으로 北 교류
만해운동이 마중물 되길"

선진규 대표는 "지금 만해 스님이 살아계셨다면 남북통일을 위해 힘쓰셨을 것이다. 따라서 만해연합은 이 같은 스님의 정신을 받들어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모임"이라며 "만해 스님에 대한 기념사업은 다른 단체들이 잘하고 있다. 추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스님께서 주창하셨을 부분을 후손들이 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대표는 이어 "만해 스님이 독립을 위해 끈질기게 활동하셨듯이 우리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백일장 대상 상금을 2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계층별 장원을 선정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 26일 창립한 만해사상실천연합에는 한국불교문인협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동국대 총동창회,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 한민족평화통일전국노인회 등이 참여했다.

선 대표는 또 "38년 전 대불청 회장으로 활동할 때 초대 총재이신 만해 스님 묘소 복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만해운동이 사회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북한 문인들과 문학 교류를 바탕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창립총회에 참석한 50여 사부대중은 미아리공동묘지에 있는 만해 스님 묘소를 참배하고, 스님의 정신을 기려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만해연합에는 한국불교문인협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동국대 총동창회,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 한민족평화통일전국노인회 등이 참여했다. **윤호섭 기자**

팥빙수로 천진불에 '쿨한' 여름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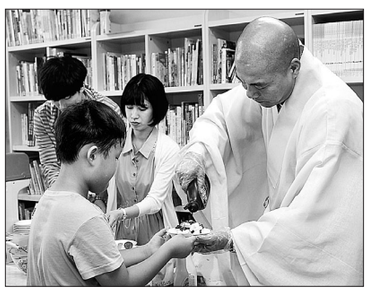
(재)아름다운동행, '2016 HOT여름 COOL나눔' 캠페인 실시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시원한 팥빙수를 선물한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2016 HOT여름 COOL나눔' 캠페인을 실시, 방학을 맞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들을 위해 팥빙수를 제공한다. 6월 21일~7월 20일 접수를 받아 50개 기관을 선정, 시원한 팥빙수와 함께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간다.

아름다운동행은 팥빙수 나눔 캠페인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엔 409곳 기관서 신청했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무더운 7월, 많은 아이들이 방학과 휴가로 설레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지역아동센터가 유일한 놀이공간"이라며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조금 더 시원하고 맛있는 여름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혜명보육원을 방문해 팥빙수를 지원하는 자공 스님 모습.

신청 및 문의는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 또는 전화(02-737-9595)로 가능하며, 전국 지역아동센터 모두 신청가능하다. 단, 2015년 선정기관은 제외. **박아름 기자**

봉은사, 우란분절 49일 기도 입재

6월 30일~8월 17일… 기도기간 중 연꽃 축제도 함께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6월 30일 법왕루서 우란분절 백중기도 입재를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49일간 지장기도에 들어간다. 기도기간 중 초재 · 3재 · 5재 · 7재(회향)까지 총 5회에 걸쳐 특별법회도 봉행한다.

아울러 봉은사는 올해 최초로 백중기도 회향까지 온 도량을 연꽃으로 장엄하는 연꽃축제도 함께 연다.

우란분절은 부처님 10대제자 중 목련존자가 부처님과 대중스님들의 법력을 빌어 어머니를 천도했던 일화서 유래한다. 불교의 4대 명절에 우란분절을 더해 5대 명절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연꽃으로 장엄한 봉은사 경내.

봉은사는 매해 우란분절 기간 동안 대웅전 마당 등 온 도량에 백색 등을 달고, 위패를 올려 천도재를 지내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호국영령 희생, 위국헌신으로 증명"

6 · 25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현직 군장교와 군승들이 모여 호국영령의 값진 희생을 되새겼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25일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 5군단 법당 호국금강사에서 '제33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봉행위원장인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과 군종교구 부교구장 승원 스님, 재갈용준 5군단장을 비롯해 참전용사, 일반불자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1984년부터 위령대재를 지원해오고 있는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오늘 천도 자리에 초청받은 모든 영령들이여, 어느 나라 어느 영령이건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고 모셨다"며 "진리의 자리엔 태어남도 없고 소멸 또한 없으니 나고 죽는 것이 사라지고 오직 정법의 마음자리만이 본래 실상이다. 생멸 없는 진리의 소식을 듣고 오직 칠보산 극락세계에서 왕생하소서"라고 축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로터스월드, 라오스 덕캄초 완공

6월 23일 준공식 개최… 6개 교실 등 갖춰

불교계 국제개발구호NGO 로터스월드에 의해 라오스 덕캄초등학교 대나무 교실이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했다.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6월 23일 라오스 씨엥쿠앙 캄 군 덕캄마을서 덕캄초등학교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에 그간 대나무 임시교실을 사용해왔던 123명 학생들은 6개 교실을 갖춘 신식 건물서 수업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사장 성관 스님, 텅씽 판타윙 씨엥쿠앙 도교육청 부청장을 비롯해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텅씽 판타윙 도교육청 부청장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덕캄마을에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로터스월드의 도움으로 앞으로 라오스 내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 등 지속적인 발전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성관 스님은 "우리나라가 가난서 벗어나 발전할 수 있던 것도 모두 교육 덕분이었다"며 "덕캄초 어린이들은 좋은 환경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만큼 열심히 노력해 이 마을, 이 나라, 이 세계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로터스월드는 6월 23일 라오스 씨엥쿠앙 덕캄마을서 덕캄초 완공식을 개최했다.

로터스월드는 2016년 4월부터 KOICA의 지원을 받아 덕캄마을의 학교기반시설 지원 및 지속적 관리 유지, 기자재 및 교육물품 제공, 교사교육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백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덕캄초 도서관을 건립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성철 스님 생가 겁외사서 생활참선을…

7월 28일·8월 4일 생활참선 캠프

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은 7월 28일(입문)과 8월 4일(심화)부터 각각 3박4일간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생활참선 캠프'를 실시한다.

생활참선 캠프는 성철 스님이 재가시절 홀로 화두참선을 시작해 '동정일여(動靜一如)'를 체험한 뒤 출가한 일화서 착안했다. 즉 재가자들이 일상서 참선을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자리다.

캠프는 원택 스님을 증명법사로,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 지도 아래 합숙과정이 진행된다. 먼저 입문과정은 성철 스님 가르침에 따라 참선 입문자들이 중도를 공부하고, 정견을 확립해 본래부처임을 알아 부처로 살아가려는 발심을 하도록 이끈다. 또한 심화과정서는 이들이 발심 법문을 듣고, 화두삼매 원리를 배워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힘을 키우는 실참이 진행된다.

입문 · 심화과정 각 30명, 50명 선착순 모집이며 회비는 18만원이다. 동반가족은 15만원. 본 과정 이수 후 연구원이 실시하는 심화과정 4학기를 수료하면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명상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sungcho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198-5375 **윤호섭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